정보화 축제 네트워크 구축해야

한내울 포럼 2월 정기모임 축제토론회

다양한 차이의 공존을 목표로 출범한 한내울 포럼(공동대표 윤순옥 송순석 이희용)이 2월7일 오후7시 2월 정기모임을 갖고 포천시 축제의 문제점진단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축제의 실질적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토론진행은 이희용 공동대표가 맡았다.

윤순옥 공동대표는 "읍·면·동별로 지역에 맞는 지역특산물을 재배하고 개발하여 중복되지 않는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문환 회원은 축제에 동원되는 한정된 참여자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반상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은미 총무는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순석 공동대표는 "우리지역의 축제는 홍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행사자체를 철저하게 해체하여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승호 회원은"포천의 환경과 걸맞는 축제가 필요하며 시대적 정서가 함축된 축제가 되어야 하며 지역특성을 살려서 등산을 통한 건강산행 축제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필요에 의하여 가고 싶은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규연 회원은 "모두가 내일이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며 주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회원은 "준비가 부족한 행사가 같은 날 치러져 참여도가 떨어진 적도 있으니 주제별 계절별로 행사를 줄여서 예산을 집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대보름과 동장군이나 억새꽃과 단풍축제는 통합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윤우영 회원은 "정체성이 확립된 새롭고 창의적인 축제상품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주제를 찾아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희용 공동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야 하며 시민의 혈세로 개최되는 축제들이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부가가치로 연결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말했다.

한편, 이날 한내울포럼 토론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자문기구의 상설화와 창의적인 먹거리와 볼거리의 개발

지역축제를 내실 있는 발전과 상품화를 위해서는 전문자문기구를 상설화 하여 창의적인 볼거리를 만들어 내고 특산물을 소재로 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차문제와 숙박문제가 해소하는 가족적이고 교육적인 축제로 준비해야 한다.

▶정체성이 확립된 행사의 브랜드화와 예산의 집중화, 조직적 홍보를 통한 관광객유치

같은 테마의 행사의 중복을 피하고 행사를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여 예산의 산발적인 집행을 집중화시켜 경쟁력 있고 실속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하며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화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정보공유와 체계적 네트워크의 확보

대진대, 경복대 컴퓨터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정보망을 확충하고 활용능력이 아직 미흡한 지역주민들에게는 컴퓨터를 생활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보급과 교육을 통하여 일년에 한번씩 포천시 정보화 축제를 실시한다면 지역의 편협성을 탈피하게 되고 지역축제와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전체를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행정효과의 신속성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커다란 견인차가 될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흰꼬리수리 출현

문 성 호
생태사진가

1월22일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에 흰꼬리수리가 출현했다는 정보를 이상일씨 께서 전해왔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 꼬리 색이 아직은 하얗지 않은 것이 어린새(유조)로 보였다

흰꼬리수리는 개체수가 많지 않은데다 떼지어 다지니 않아 멀리서나마 한번 보기도 어려운 새인데 그런 새를 가까이서 촬영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흰꼬리수리는 천연기념물 243-4호로, 환경부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였으며 몸길이 69-94㎝의 크고 육중한 대형조류로 흰색의 꼬리를 제외하고는 균일한 갈색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한국, 일본의 큰 하천이나 해안가에 서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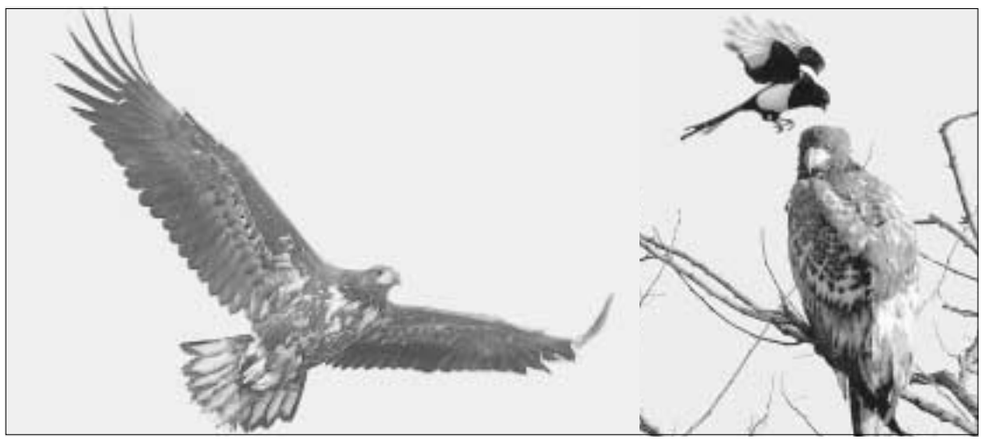
성조(成鳥)의 꼬리가 희므로 '흰꼬리수리'라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날개를 폈을때는 180~240㎝정도의 웅장함을 자랑하며 몸무게 3~5㎏ 정도이다.

까치가 영역 내에 들어 왔다고 겁 없이 흰꼬리수리를 괴롭히지만 흰꼬리수리는 맹금류 가운데 먹이사슬의 최상위답게 애교로 받아 주고 있다.

위장해서 조용히 기다리면 이렇게 배설장면도 목격할 수 있는데 일부 새들은 배설시 꼬리를 치켜들고 힘껏 물총 쏘듯이 발사하여 주위의 깃털에 배설물이 묻지 않게 하는 조물주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재미도 솔솔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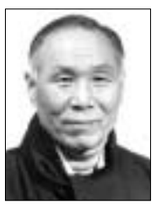
포천을 월동지로 택한 것이라면 포천지역 생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의: 생태사진가 문성호(http://www.sasasa.net) 011-9094-8226



웰빙 부사의(不思意)

8 진리(眞理)

'진리란 잣대는 절대적인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규 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흔히 대학을 '상아탑(象牙塔)'이라고 한다. 또 '진리를 탐구(探究)하는 곳'이라고도 한다. 그렇다. 대학은 지식(知識)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다. 지식과 아울러 지혜(智慧)를 전달해 주고 인품(人品)을 전달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다만 진리 못지 않게 중요한 덕목(德目)이 인품이기 때문에 '인품'을 전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법칙(法則)이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시공(時空)을 초월(超越)해 관통하는 법칙이다. 그리고 절대적(絶對的)인 것이다. 절대란 상대(相對)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가 있으면 절대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다. 둘이 아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 관통하는 것이고 영원(永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시공을 초월해 영원으로 이어지는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대학에서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다. 대학의 소임(所任)이 중요한 이유이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승성(繼承性)이 있어야 한다. 계승성이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란 말이다. 영원히 이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계승성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계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영원한 것이 있는가? 모두가 변한다. 인생무상(人生無常)이란 말이 생겨난 이유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말이 생겨난 이유이다.

제행무상인데 '무엇'이 영원하다는 말인가? 인생무상인데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론 인생은 변한다. 누구나 생노병사(生老病死)란 순환과정을 거친다. 누구든 생노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사람뿐이 아니다. 우주본체(宇宙本體) 자체가 계절(季節)이란 순환과정(循環過程)을 거친다.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변하는 과정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바로 '법칙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 '진리란 잣대는 절대적인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연(自然)이다. 자연의 섭리(攝理)이다. 섭리의 다스림을 받는 이유이다. 섭리의 다스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이유이다.

자연의 섭리와 그 이치를 궁구(窮究)하는 것이 바로 대학에서 할 일이요 그러한 연구(硏究)를 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대학이 지식(知識)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기술(技術)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대학은 '진리(眞理)를 탐구하는 곳'이다. 대학은 '지식(知識)'뿐 아니라 '지혜(智慧)'를 전달해 주고 '인품(人品)'을 전달해주는 곳이다.

그래서 노교수님(老敎授任)들이 "먼저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인품을 닦으라는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익히라고 하는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목적(目的)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다. 안다고 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안다고 다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주객(主客)이 전도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목적(目的)이 방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진리탐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理論)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론정립(理論定立)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론'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乖離)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괴리의 간격을 좁혀주는 것도 역시 '이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정립을 말하는 것이다.

Essay

영월에서 가져온 봄!

윤 순 옥
포천의제21협의회 고문

몇 달 전 강원도 영월에 간 적이 있었다. 영월 하면 잊혀지지 않는 학창시절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에 아련한 옛날을 회상하며 청량포 주변을 살펴보았다.

어린 단종 임금의 애환이 서린 곳! 지금도 강물은 단종의 능 아래 소리 없이 흐르고 있다. 역사의 흐름은 후대에 지난 사실을 더 역력히 펼치듯이 당시의 권력다툼의 치열함이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연루되어 희생된 숱한 망령들의 원통함이 영월의 산천을 감싸고 있나 싶어 오싹 한기를 느낀다.

지금도 권력의 투쟁은 여전하다. 어제의 정상이 오늘의 도전자에게 밀리듯 숨가쁘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고 영원한 위치에서 한없이 누릴 것 같지만 뒤이어 닥치는 회오리 같은 바람에 낙엽처럼 떨어지니 한낮 그림자처럼 권력의 욕심에서 깨어나야 가벼운 몸과 마음이 하늘을 날을 것 같은 것이다.

강 언덕 기슭에 초겨울 추위 속에서 보라색 작은 꽃송이가 보고만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닌 줄 알면서도 뿌리 채 한 포기 뽑아 비닐봉지에 싸서 소중히 다루며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해 오자마자 화분에 정성껏 옮겨 심었다.

뿌리내려 살던 곳을 떠나 너무 다른 환경에 안착하려니 소리 없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서너 달 매일처럼 관심을 갖고 정성으로 보살폈더니 어느 날 아침 열 송이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살아있음에 감사했는데 그 고운 꽃을 피워주니 훔쳐내듯 가지고 와 아픈 양심 때문에 적지 않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제야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앞 베란다에는 겹철쭉 이랑 군자란이 따뜻한 날씨에 앞다투어 꽃을 피우고 있다. 그래도 이름도 모르는 작은 꽃송이에 흠뻑 빠져 있으니 시샘하는 꽃들의 따끔한 시선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다시 영월에 갈 일이 있으면 이 꽃의 이름을 찾아와야 한다. 꽃이 좋아 꽃시장을 다녀봐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꽃!

누구라도 좋아할 꽃 모양에 이름을 몰라 안타깝기도 하다. 창가 가까이 다가온 봄을 너와 함께 맞으니 올 봄의 특별한 소식을 누구에겐가 전해야겠다.

자유기고

달리고 싶은 하루^^웃을 수 만 있다면

김 순 희
주부명예기자단 내촌면지부장

봄 색이 완연한 것이 입춘대길 지난 것에 대한 화답이라도 하듯이 겨우내 웅크리던 체온마저 팔을 걷어올리게 하는 시간들.

어느새 이 만치 와 버린 시간 속에 허덕이다가도 뒤돌아보며 웃음을 머금게 하는 일들 속에 파묻힌 자신을 봅니다.

모두 여유로워야 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우리들이지만 가끔은 그것을 깨고 싶은 욕망에 허덕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곤 달려 봅니다.

"하하하 호호호 헤헤헤 흐흐흐"

요즈음 어디서나 듣게 되는 웃음소리들. 웃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며 의구심으로 가득 찼지만 그래도 억지 웃음을 웃을 수만 있다면 성공한 것이라 봅니다.

미운 사람도 자꾸 칭찬을 하면 좋아지고 그 앞에서 억지 웃음이라도 웃는 다면 그 미운 마음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마주 보며 웃으면 미용에도 좋고 그분의 관상이 좋아지기에 부자도 된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일상에 얼굴 찌 뿌리는 일 있어도 웃고, 화나는 일 있어도 웃고, 소리 지를 일 있으면 큰소리고 하하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에도 모두 이롭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 주었다고 하나 달라고 하지 마시고 두개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부자 되는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 지하철에서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영업사원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네 어디 갔다 오나? 하고 물으니 돈 벌러 갔다 옵니다 라고 대답해서 그럼 얼마를 벌었나? 하니 그분은 "하나 두 못 벌었습니다" 했다. 자네는 돈 벌러 갔으니 돈을 못 벌은 것이 당연하네" 하시는 말씀에 물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네는 일은 안 했지 않은가? 그러니 당연히 돈을 못 벌은 것이지. 하는 말씀 중에 감동을 크게 받았다는 말이 지금도 그 말이 맞는 말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지요..우리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님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인지 자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크게 웃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해 질 것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라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생긴다는 설도 있습니다.

항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 다스리시고 언제나 환한 웃음이 차고 넘치는 기분으로 일상을 임하신다면 모두 힘차게 달리고 싶은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유기고

기쁨이자 희망 나의 손주

강 옥 자
주부명예기자단이사

요즘 난 세월 가는지 모르고 몇 달을 지내왔다. 몇 년을 기다리다 우리 곁에 나타난 손주 종현이. 우리의 기쁨이자 희망인 종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 주어 고맙기 짝이 없다.

아침을 깨우는 종현이의 찡얼대는 소리는 나를 번쩍 일어나게 한다. 누가 말했나요? 늙은이는 자고 나면 보기 싫어도 아기들은 자고 나면 더 이쁘다고 꼬옥 맞는 말인 것 같다. 요즘 다 출산 장려를 권장한다. 집안에 아기 냄새와 울음소리는 삶의 보람이자 희망이다. 내가 새댁 일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이런 표지판들이 출산을 막았고

배꼽수술이라는 불임수술로 인구를 억제시켰다. 30년이 막 지난 지금 우리는 발등에 불떨어졌다고 다 출산 정책으로 돌아서 이것저것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야단들이다. 아마 나도 그때 불임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섯 이상은 자녀를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기가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랐었다. 우리가족은 아들내외와 따로 살았는데 며느리 부탁으로 같이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둘이 만 썰렁하게 살 때와 같이 모여 살아보니 무언지 모르게 훈훈함이 집안에 감돈다.

핵가족 시대와 대가족시대. 지금 양면에서 볼 때에 대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 때 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다른 것 같다.

나는 이제 할머니로써 손주를 사랑하고 감싸주는 신세대 할머니로써 살아가야 한다. 종현아 사랑해.

자유 시

보내는 마음

이종실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뉘엇 뉘엇 해는 기울어만 가고 세인들은 초조한 마음에 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얼마 안 되는데 소중하고 고귀하게 어떻게 보내야 할까!
무엇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
올해는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냈고 무엇을 빼앗겼는지 조차 모르게 깜박할 새에 흘러가고 말았네.
내게 있어서는 너무 힘 들었던 한 해 인 것만 같다.
악몽같은 시간들이 흘러 버려 한 숨은 돌리지만 아쉬운 미련도 따른다.
새해가 돌아오기 전 해야 할 일들이 많았건만, 이루어진 일들보다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남았다.
또다시 다음에 다가오는 새해에 기대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인가요.
언제나처럼 미련을 남기고 사는 것이 인생이란 것일까요.
결국 남은 것은 빈공간에 허무함뿐 인생의 삶은 언제나 만족보다 언제나 미련을 남겨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병술년을 마무리하고 황금돼지 복돼지해인 정해년을 밝게 맞이하련다.

인명피해 예방 김순덕씨 표창

원룸 화재 입주자 15명 대피 감사의 뜻 전달

포천소방서는 지난 1월3일 새벽에 발생한 경원회관 원룸 화재시 입주자 15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김순덕씨에게 감사의 표창장을 전달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표창장을 수여받은 김순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주변 원룸을 찾아다니며 입주자 전원을 외부로 대피시켰다. 또 잔여 인명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피해방지 활동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입주자를 대피시킨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고 화재발생 목격사항을 소방서에 전달해 화재진압에 공헌했다.

이보형 소방서장은 표창장을 전달하면서 "화재현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시민의 막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 드린다"면서 "시민들의 초기 화재대응은 안전의 밑거름으로 화재예방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원룸 화재시 김씨 도움으로 대피한 입주자는 "김씨는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인명대패 요령 등을 원룸 입주자들에게 교육과 홍보해 왔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준 김순덕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